세계 최대 불교학대회, 한국서 열린다

19차 세계불교학대회 8월 15~19일 서울대서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최대 규모의 불교학술대회인 세계불교학회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학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은수)는 오는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세계불교학회(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IABS) 제19차 학술대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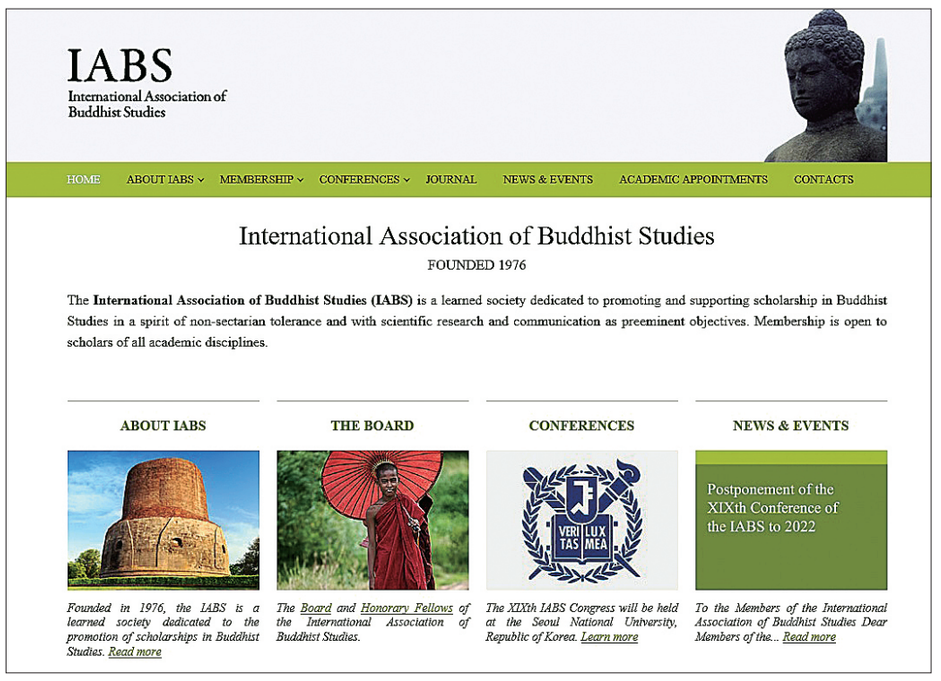
세계불교학회는 1976년 창립됐으며 유럽 · 북미 · 아시아 지역의 주요 불교학자들을 망라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있는 불교학술단체다. 1978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유럽, 북미, 아시아를 순회하며 3년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에서 열렸으며, 한국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17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18차 대회에서 중국 명문 저장대(浙江大)와 열띤 경합 끝에 이뤄낸 성과라서 더욱 값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으로 2년간 두 차례 연기된 끝에 개최돼 기대를 모은다.

5일 간 진행되는 제19차 대회는 50개 패널, 22개 분과를 통해 36개국 50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하며, 총 495편의 논문들이 발표된다. 각 3시간 30분씩 진행되는 패널과 분과에서는 최대 6명이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는 불교철학부터 문헌학, 미술사, 역사를 비롯해 수행 · 명상, 사회문제, 윤리학 등 폭넓게 다뤄진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는 과학기술과 불교 연구를 접목한 연구 주제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패널, 분과 주제로는 △불교 문헌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간다라와 그 너머의 불교 네트워크 △아비담마 수행: 텍스트와 스콜라주의를 넘어서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불교의 전통: 연속성과 변화 △간다란 불교 필사본과 비문: 새로운 발견과 연구 △불교 경전 전통에 관한 최근 연구: 텍스트와 맥락 △내륙 아시아에서 발굴된 불교 자료 -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오타니 컬렉션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아시아 참여불교의 이론과 실천 △동아시아 불교 연구를 위한 첨단 디지털 도구 워크숍 등이 있다.

36개국 불교학자 500여명 참여
다양한 주제 495편 논문들 발표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동안 연기
韓불교학 세계적 위상 제고 기대

대회에 참여하는 58명의 세계 석학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서구권에서는 일엽 스님 연구로 잘 알려진 박진영 아메리카대 교수, 남아시아 불교 연구자이자 디지털 기술을 불교 연구에 접목시키고 있는 다니엘 베들링거(Daniel Veidlinger)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중세불교사 전문가인 에릭 그린(Eric Greene) 예일대 교수, 고전 인도철학 전문가 얀 웨스터호프(Jan Westerhoff) 옥스퍼드대 교수, 티베트 문헌 연구로 잘 알려진 클라우스 디터 메스(Klaus-Dieter Mathes) 비엔나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세계불교학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세계불교학회 제19차 학술대회가 오는 8월 15~1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일원서 열린다. 세계불교학대회가 한국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권에서는 한국불교와 동아시아 불교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찰스 뮬러(Charles Muller) 무사시노대 불교문화연구소장, 한국에는 〈열반경 연구〉로 잘 알려진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 도쿄대 교수를 비롯해 데구치 야스오(出口康夫) 교토대 교수, 광싱(廣興) 홍콩대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19차 세계불교학대회 조직위원회는 방역 등의 이유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자들을 위해 웹사이트나 줌, 웹엑스 등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학술대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이후인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해인사, 운문사 등을 순례하는 한국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조은수 대회 조직위원장(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함께 진행하며 대회 참여율 진작과 파급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내외 최신 연구들의 주제 및 방법론을 알 수 있는 초록을 대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불교학자나 관심있는 연구자들에게도 세계불교학 동향과 한국불교학의 위치를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에서는 역대 최고의 한국불교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며,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세계 학자들에게 제공된다"면서 "이번 대회가 한국불교학의 지평을 확장하고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산 대종사 책임총무원장제, 현 체재 기틀"

동국대 불교학술원, 경산 대종사 조명 학술대회

종정 정신적 지주, 원장 행정 수반
현재 '총무원장 중심제' 체재 주장
"종무 지도자상 정확히 파악" 평가

정화불사의 주역 경산 대종사가 추진했던 책임총무원장제가 현재의 총무원장 중심제의 기틀을 놨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7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의 정법당간 경산 대종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학월 경산의 총무원장 중심제'를 통해 경산 대종사가 추진했던 책임 총무원장제를 조명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경산 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4번 선출됐다. 공식적으로는 통합종단의 3대(1966~67), 9대(1973~75) 총무원장이었고, 1961년 총무원장으로 선출돼 통합종단 출범을 이끌고 조계종 1대 중앙종회 차석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사파와 개운사파로 나뉘었던 1979년에 조계사파의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지만, 후일 개운사파 월주 스님이 총무원장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경산 대종사의 임명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조 교수는 "경산 대종사는 4번의 총무원장 재임 모두 중도 사퇴를 하게 된다. 통합종단 출범 이전의 총무원장 중도 사퇴는 통합종단 출범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퇴였다"면서 "통합종단에서의 중도사퇴들은 종정 중심제에서 총무원장 중심제를 실현하고자 하던 과정에서 생긴 정치적 대립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산 대종사가 추구하려 했던 총무원장 중심제는 강술집인 〈삼처전심〉 중 '종단 화합을 발원한 성명서'에 잘 나타나 있다. 경산 대종사는 종정을 전종도의 정신적 지주이자 상징으로 추대하고, 총무원장이 종무행정의 책임을 지고 집행하다가 실정할 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을 추구했다.

조 교수는 "경산 대종사가 실현하고자 한 총무원장 중심제는 현재 조계종 종정과 총무원장의 역할 분담과 완전히 일치한다"면서 "비록 경산 대종사 생전에 총무원장 중심제가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종교조직 안에서 종단 운영에 적합한 지도자상과 그 역할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경산 대종사의 수행, 정화불사, 포교행 등도 조명됐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는 '학월 경산의 수행과 지계'를, 한동민 수원화성박물관장은 '경산 대종사의 정화불사와 종단화합'을,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경산 대종사의 포교행'을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군승장교 원경 스님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인사동 출토 금속활자 불경 언해본과 유사해"

국립고궁博, 인사동 발굴 학술대회

지난해 서울 인사동에서 출토된 금속활자가 조선 전기 불경 언해본의 글자와 가깝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지학자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7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 열린 '2021 인사동 발굴, 그 성과와 나아갈 길' 주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6월 도심 탑골공원 인근 인사동 피맛골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조선 전기 금속활자를 비롯해 그동안 기록으로만 전하던 천문시계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부품이 출토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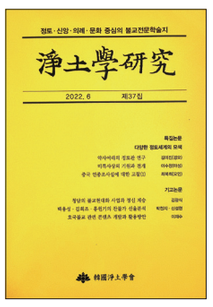
금속활자는 한자 활자 1000여 점과 한글 활자 600여 점 등이 발견됐고, 세종의 지시로 1448년 편찬된 운서인 〈동국정운(東國正韻)〉 표기법을 사용한 활자와 다양한 크기의 활자가 확인됐다.

활자들을 분석한 옥 교수는 중간 크기 활자와 작은 크기 활자들이 불경 언해본 인출 활자와 유사하다고 추정했다. 중간 크기의 활자는 세조 7년(1461년) 을해자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설아미타경〉 언해본의 글자와 유사하고, 작은 활자 역시 같은 해 간행된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을해자 글씨와 가깝다는 게 옥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언해본을 실제로 인쇄한 한글 금속활자 등장은 서적의 체계만큼이나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난해 서울 인사동서 출토된 조선 금속활자.

정토학연구 73집 발간



한국정토학회(회장 혜명)은 학술지 〈정토학연구〉 37집을 발간했다.

'다양한 정토세계의 모색'을 주제로 한 특집 논문으로는 경오 스님의 '약사여래 정토관 연구'와 마성 스님의 '미륵사상의 기원과 전개', 오인 스님의 '중국 연종조사설에 대한 고찰(1)'이 실렸다.

기고 논문으로는 김광식의 '청담의 불교현대화 사업과 정신 계승', 박천지 · 신성현의 '백용성 · 김희조 · 홍원기의 찬불가 선율 분석', 이재수의 '호국불교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활용방안'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천안 호두마을 명상센터 아래
문수동 16개 방을
비구니 스님께 세를 놓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명상센터에서
수행하시며 지내실 분에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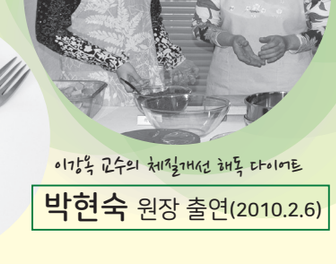
■ **전세** : 1,500만원
■ **월세** : 보증금 1,000만원 / 매달 5만원
■ 2층에 명상홀 사용하실 수 있고 선원에 명상지도 하시는 사야도께 공부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명상센터 內 황토집 매매 가능합니다.

문의 : 010-7468-0021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